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4월 2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26.(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4. 25. (월)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 (044-203-4080)	담 당 자	이예원 사무관(044-203-4086)

중국 투자가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행사 개최

- 4월 마지막주에 중국투자가를 한국에 초청하여 차이나위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최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중국 대형 투자회사인 푸싱그룹 등을 포함한 중국 주요 투자가를 한국에 초청하여 「차이나위크(China Week)」를 개최한다.

*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추이(신고, 백만달러) : ('10)414→('11)651→('12)727→('13)481→('14)1,189→('15)1,978

2016년 차이나위크 개요

○ 일자/장소 : '16.4.25.(월)~27.(수) / 서울 포시즌스 호텔 등
○ 참석자 : 중국기업 58개사, 국내기업 113개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 18개
○ 주요일정 : 투자가 라운드테이블(4.26, 11:30~13:00), 투자설명회(4.26, 10:00~11:20), 1:1 투자상담회(4.26, 13:00~17:00), 투자지역 현장방문(4.27)

○ 이번 차이나위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발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어,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투자 형태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특히 지난 3월 '북경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중국 기업의 관심이 확인된 고급 소비재(13개사), 문화콘텐츠(13개사), 의료서비스 등 신산업(12개사) 분야를 중심으로 강한 투자의향을 보유한 기업이 다수 방한하여 향후 대한(對韓)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 산업부는 주형환 장관 주재하에 징동(JD.com, 중국 2위 전자상거래 기업), 안방보험(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인수) 등 중국 유력 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투자유치성과의 조기창출을 추진했다.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 일시/장소 : '16.4.26. 11:30~13:00 / 서울 포시즌스 호텔
○ 참석자 : [한국측] **산업부 주형환장관**(주재), 코트라 Invest Korea 대표 등
[중국측] 안방보험, 징동(JD.com) 등 중국 투자기업 대표(11개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 등

○ 주형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마련된 기회를 양국간 투자협력으로 활용한다면 양국이 모두 상생(win-win)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고급소비재·서비스업·신산업 분야는 향후 유망한 투자협력 분야"라고 강조하고,

- 지난 1월 '스태츠칩팩코리아' 현장 방문 기회에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향이 결합하여 구체적인 투자로 이어진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정부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 산업부는 이번 차이나위크 행사를 통하여 총 1.5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가 예상되며,

○ 금융·부동산 분야에 집중되었던 중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고급소비재·문화콘텐츠·신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국기업이 상호 상생(win-win)하는 투자협력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투자매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 이번 행사를 통해 창출된 중국 기업의 투자 국면전환(모멘텀)을 가시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주중 대사관·영사관 및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한 다각적인 투자유치 지원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붙임: 제2차 차이나위크 개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이예원 사무관(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2차 차이나위크 개요

☐ **일시 :** '16.4.25(월)~27(수)

☐ **장소 :** 서울 포시즌스 호텔 등

☐ **참석자 :** 중국기업 58개사, 국내기업 113개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 18개

☐ **프로그램(안)**

일자	시간	주 요 일 정	비고
4.26 (화)	10:00~11:20	**① 한국 투자설명회**	
	- 09:50~10:00	- 네트워킹 및 홍보영상 시청	
	- 10:00~10:05	- 개회사	무투실장
	- 10:05~10:10	- 축사	주한 중국대사관
	- 10:10~10:25	- 한중투자협력 방안과 외국인투자 지원정책	투자정책관
	- 10:25~10:40	- 한중FTA와 투자환경	IK 대표
	- 10:40~10:50	- 투자 성공사례 (문화콘텐츠)	중국 기업
	- 10:50~11:20	- 산업별 설명 (관광, 문화콘텐츠, 고급소비재)	외부 전문가
	11:30~13:00	**②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11개사
	- 11:30~11:35	- 참석자 기념촬영 및 소개	
	- 11:35~11:55	- 모두 발언 (산업부장관)	
	- 11:55~13:00	- 한중협력증진 방안 논의	
	13:00~17:00	**③ 1:1 투자상담회**	
4.27 (수)	09:00~18:00	**현장 방문**	새만금, 판교, 익산 식품클러스터 등

참고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두발언 (투자 라운드테이블)

1 인사 말씀

중국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은
특별히 중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와
중점 유치분야 등에 대한 **투자설명회,**
한국 유망 기업과의 **1:1 상담회 및**
새만금·판교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패키지로 엮어서 진행하는 차이나 위크 기간중에
개최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북경에서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12개 중국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신성장산업,**
고급소비재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 기업들간의 협력과 투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지난 3월 행사와 같이
양국간 투자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한·중 투자협력 필요성

중국 기업인 여러분,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4년** 동안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양국 관계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로 **발효 2년차**에 접어든
한·중 FTA는 양국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세인하 효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 해소노력**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에 기반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양국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주요 기업들은 **고급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바이오헬스 및 ICT 융합 산업등
5개 신산업 분야에 **44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는 이에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금융, 세제, R&D, 인력 등의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산업간 융합 플랫폼 조성** 등의
세 가지의 기본 틀 아래에서
정책적 지원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도

단순 상품 교역 중심에서 벗어나
양국이 보유한 기술과 자본에
다양한 **비지니스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이
서로 win-win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밸류체인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1분기 5천만달러에 그쳤던 중국으로부터의
대한국 투자가 **금년에는 3.8억 달러**로
7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작년 19.8억달러**에서
25% 이상 상향된 **25억달러**가 중국으로부터
투자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한·중 투자협력 분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에 투자하실 때
전략적으로 유망한 세가지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FTA를 활용한 **고급 소비재 분야**입니다.

그동안 양국이 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등
중후장대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협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농수산·식품, 화장품, 미용, 의류·패션,
유아·생활용품, 의약품 등 **고급 소비재**는 물론,

성형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호텔·복합리조트 등 **관광 레져**와
교육 분야 등으로
양국 투자협력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소비재** 제품과
의료 및 관광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와
최근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한류 붐을 접목**할 경우
중국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를 지닌 한국산 소비재와
한류와 같은 문화콘텐츠, IT,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고
중국 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중국과 한국 시장은 물론,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 산업 부문**도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 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13.5 규획**을 통해
신소재, 로봇, 무인자동차, 친환경산업 등을 포함한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에너지 효율관리·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지능형 로봇, 무인자동차를 포함한 **ICT 융합산업** 등을
5대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 자본과 시장**을 지닌
양국 기업들간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과 **상호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들도
서로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살려
경쟁보다는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4 외국인 투자자 지원정책

기업인 여러분,

한국은 중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투자금액의 **30%까지 현금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7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최대 50년간 임대료의 50~100%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기업만을 위해
한·중 양국 정상간 합의에 의해 추진중인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 한·중 산업단지에는,

조세감면 기간과 **현금지원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확대**하는 등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인력 규제의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투자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5 맺음말

중국 기업인 여러분

한국 정부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방문한 계기에 애로사항을 제기**해 주셨고,

현장에서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최근 최종적으로 **추가 투자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요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